

“시스템 혁신·체질개선 강도 높이자”

광동제약

‘위기극복 위한 혁신경영’ 워크숍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 과정 등 공유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가 하반기 시스템 혁신과 체질개선 강화를 주문했다.

광동제약은 지난 4~5일 ‘2019년 위기극복을 위한 혁신경영’을 주제로 하반기 워크숍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광동제약 임직원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와 경기도 성남 소재 새마을운동중앙연구소에서 사업부별로 상반기 실적을 공유하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했다.

초청강사 특강과 경영 및 인사 설명회 등을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워크 스마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해 임직원이 경영 체질개선과 개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광동제약은 올해 전사적인 시스템 혁신과 체질개선을 향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5대 핵심가치가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영업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가 4~5일 열린 하반기 워크숍에서 시스템 혁신과 체질개선 강화를 당부하고 있다. /광동제약

및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사업부와 부서, 직원에 대한 포상도 시행했다. 우수한 영업성과를 거둔 사업부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대상은 OTC사업부가, 특별상은 백신사업부가 받았다. OTC사업부 강북지점 등 3개팀, DTC사업부 대구지점 등 3개팀, 유통생수사업본부 신유통팀, ETC사업본부 호남팀 등 3개팀은 단체상을, 백신대구경북팀 전보규 차장 등 15명은 개인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상패와 상금이 수여됐다.

광동제약 임직원의 행동규범인 ‘5대 핵심가치’ 우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특히 핵심가치 중 ‘주인의식’ 부문의 해외사업팀 등 2개 단체와 5명의 개인수상자가 선정됐다.

/이세경 기자

신약 개발에 1조원 들어가는데 정부의 기업 지원 20%에 그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투자 현황 분석 정책보고서 발간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도 못 미쳐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연구개발(R&D) 예산 중 실제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비중은 20%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원 이상이 드는 반면, 정부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은 6억원에도 못미쳤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이 같은 정책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공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적은 예산으로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제약·바이오사에 투자된 금

액은 대학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연평균 지원 금액도 최대 5억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원 이상이 들고,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약개발에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해도 60억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다.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가 여전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여기서 나온다.

2011년 이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흐름 등을 분석한 이상은 협회 정보분석팀 과장은 “정부의 대학·출연연구소 등 기초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큰 만큼 그 성과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연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 민간기금 투자 촉진 혜택, 성공불용자 등 간접적인 방식의 연구개발 촉진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

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5개년 계획이 결국은 약가 인하 전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종근당 김민권 부장은 “정부는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업계에서는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나 약가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것이 정책 성공에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제언했다.

인공지능 출현으로 신약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철휘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 부센터장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한 제약산업계 패러다임 전환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며 “후발주자인 한국은 규제 완화, 미래 기술로의 점프, 개방형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산·학·연 각 주체의 역량을 한데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유한양행, 60억 전략적 투자 단행

국내 연구소기업 ‘아임뉴런’에 투자
뇌질환 등 난치질환 치료법 개발 전념

유한양행이 국내 연구소기업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의 시드라운드(창업 초기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는 초기 자금조달 단계)에 6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는 신생 연구소기업으로 2019년 4월 성균관대 2명의 교수진과 유한양행 출신의 김한주 대표이사가 공동 설립했다. 뇌질환 등 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의과학 연구에 전념하고 있고, 차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수의 플랫폼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약물과 결합 가능한 ‘뇌혈관장벽(BBB) 투과 약물전달 플랫폼기술’과 약물의 뇌혈관장벽 투과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인비보(In vivo) 라이브 이미징 기술’이 대표적이다.

유한양행의 이번 지분 투자는 진일보된 오픈이노베이션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유한양행은 성균관대와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 및 인력양성 증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아임뉴런과 뇌혈관장벽 투과 뇌질환 치료제의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뇌암, 퇴행성 뇌질환 등 뇌질환 영역에 대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한양행 이정희 사장은 “이번 투자



유한양행 전경. /뉴시스

는 유한양행, 성균관대,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가 국가 바이오산업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 혁신신약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혁신적인 기초의과학 기술로 난치질환 신약개발에 나서 지속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치 질환을 위한 신약은 수요가 많으나 충분한 기술 도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는 고통 받고 성장은 더딘 분야이다.

아임뉴런 바이오사이언스 김한주 대표이사는 “아임뉴런은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일차적으로 뇌질환 신약개발에서 기술적 한계를 보이는 뇌혈관장벽 약물투과 플랫폼기술을 성숙시키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기초의과학 우수성 및 신약개발 역량을 결집시킨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글로벌 연구소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유한양행은 제약업계 1위 기업으로서 신생회사의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환자와 질병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장내 환경개선 통한 건강한 비만치료법 소개

GC녹십자웰빙

‘2019 장과 비만 심포지엄’ 개최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기업인 GC녹십자웰빙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2019 장과 비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정의학과 및 내과 전문의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과 비만’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로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비만과 장내환경의 연관성’,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분해 효과’ 등 장내 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비만치료 방법을 소개했다.

행사는 호주 최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조기업 SFI사의 임원진이 참석하는 등 기존 식욕억제 중심의 비만치료와는 다른 치료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



‘2019 장과 비만 심포지엄’ 행사 모습.

았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2016년부터 SFI의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가운데 대표 유산균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컴플리트 캡슐’을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유영호 대표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중 및 비만관리를 넘

어 신체의 건강도 챙기는 영양치료의 개념을 소개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영양치료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C녹십자웰빙은 영양주사제와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화의료원-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구 내 학생 정신건강 증진 협약

문제 조기 발견·건강한 성장 도와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왼쪽)과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5일 이대서울병원 대강당에서 강서양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 내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5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문병인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장, 편육범 이대서울병원장, 조도상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등의

료원 관계자들과 심금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민표 교육지원국장, 정순자 센터장 등 교육지원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지역 정신과 전문의들과 연대를 통한 고위험군 학생들의 조기 치료 지원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위기 학생 관리를 통한 조기 치료 실현, 학교 지원을 통한 학생 정신건강 증진, 협력을 통한 사회 발전으로 학생이 행복한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